

2011년 베트남 섬유 및 의류 수출

8개월 만에 90억 달러 달성

베트남 산업무역국의 발표에 따르면, 8월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 수출이 13억 8천 달러에 도달하였다고 한다. 올해 8개월 동안의 누적 수출은 89억 8천 달러로 베트남 총수출액의 14.77%에 해당하며, 전년 대비 28.6% 증가한 금액이다. 또한 8월의 베트남 섬유 생산량 역시 면섬유(+18.2%) 및 기성복 의류(+7.4%) 등과 같이 매달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.

베트남 섬유 업계는 올해 125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할 태세이다.



<사진 1> 2011년 8월 베트남 섬유 및 의류 수출 13억 8천 달러 달성

(사진 출처: Kaosha Textile)

그러나 베트남 섬유 기업, 특히 중소 규모의 기업들은 자본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, 가장 큰 수출 시장인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가 채무 위기가 베트남 섬유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♣ Journal for Asia on Textile & Apparel (2011.05.09)